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54, No.1 (January 2004) pp.109~123

90년대 이후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적 특성에 관한 연구

- 패션의 트랜드와 패션의 포스트모던적 특성과의 연계(連繫)를 중심으로 -

성 광 숙
동명정보대학교 패션디자인과 조교수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Fashion Expression after the 1990s

- Focusing on the link between Fashion Trend and Characteristics of Postmodernistic Fashion -

Kwang-Sook Sung
Assistant Professor, Tongmyong University of Information Technology
(2003. 10. 20 투고)

ABSTRACT

In this study, the fashion trend after the 1990s and the characteristics of fashion in the post-modernistic viewpoint that mainly effected fashion were observ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fashion illustration expression was observed in the viewpoint of its link. It can be seen that mutually close characteristics are mutually linked.

As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fashion illustration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areas, and the sub-concepts are as following.

The first category is the pursuit of feminine beauty of individual multi-dimension. This includes- 1) retro feminine beauty; 2) fetishistic and ecstatic feminine beauty; 3) mixed composition genderless (mixed composition style, ageless style and raceless style); and 4) beauty of body de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deformation due to partial transformation, change into animalization, mechanization and spirituelization, and beautification of crudeness).

The second is the intentional deviation of expression and production technique. This includes-1) deviation from traditional perspective; 2) deviation from composition concept; and 3) breaking away from the existing material and expression technique of material.

The third is the pursuit of authority-rejection form of expression. This is an area that should be noticed in the fashion illustration expression of the 1990s, as it shows the most diverse phenomenon. The sub-concepts of this category include- 1)separation of art 2) minimalism (minimalism in structure and

Corresponding author: Kwang-Sook Sung, E-mail: kssung@tit.ac.kr
본 논문은 2002년도 동명정보대학교 '정보디자인 연구소'의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production method): 3) flatness: 4) completion of incompletion: 5) accidentalism: 6)sportive:7)absence of figure: 8) intentional childishness 9) story development: 10) techno mechanism and cyber character: and 11) animation style.

Key words: fashion trend(패션트랜드), fashion illustration(패션일러스트레이션), postmodern(포스트모던)

Ⅰ. 서 론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그림이라는 방식으로 표현되기에, 형식적 결과인 미술로의 논의는 불가피한 일이기는 하지만 미술로서가 아닌 패션일러스트레이션 나름대로의 적절한 분석의 기준을 설정하여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순수회화나 여타 일러스트레이션과 달리 패션과 함께 존재하는 상업미술이기에, 순수 회화적 분석 기준이나 타 분야의 일러스트레이션의 분석 기준으로 논의된다는 것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본질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기능이나 역할, 존재의 필요성이 상실된 형식적인 결과만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패션의 선재(先在)에 존립되는 것이므로 패션과의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패션은 변화하는 속성으로 인하여 유행, 트랜드라는 개념과 동일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트랜드는 사전적으로 방향, 경향, 동향, 추세, 유행(tendency, mode, fashion)을 뜻한다. 패션용어로 쓰일 경우 즉, 패션트랜드는 광의적으로 '의복의 패션 경향, 혹은 다음 시즌의 패션 경향을 말한다. 세계적인 변화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사회적 트랜드이며, 이는 가치 체계, 도덕, 미에 대한 관념, 추앙하고 따르는 대상,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 즉 일반적인 생활의 양식을 변화시키는 문화적 변동의 중요한 사회적 경향이다. 이러한 사회 트랜드를 받아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착장을 구성하는 방법이 패션 트랜드이다.[1]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있어 패션트랜드라는 것은 한 시대의 예술적 사조, 이와 관련된 패션의 형태적이고 기법적인 특성, 패션이 예술사조를 반영하는 형식과 패션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자율성 및 자체의 의미, 그리고 이러한 형식과 내용에 영향을 두루 끼치는 사회문화적 맥락까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2]

패션의 또 다른 표현 메카니즘인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패션트랜드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그 의미를 확장시켜, 이미지를 극대화시킴으로서 트랜드의 리더적 역할을 담당한다. 오히려 패션과 패션이 내포하는 독특한 환상을 무한히 드러내 시각화 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하여 패션의 트랜드를 앞서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90년대 유행패션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포스트모던 패션과 90년대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을 연계하여 하나의 연결선상에서 보고 표현 특성을 연구하는 것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시대적 기록'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생각할 때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작품제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이 연구는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이 패션을 표현하는 기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대패션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동시대의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는 또 다른 코드가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이 패션을 나타내는 또 다른 기호라는 사실과 90년대 이후의 패션 경향이 포스트모던적 특성 범주에 거의 벗어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목도할때, 본 연구의 결과가 곧 최근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특성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먼저 90년대 이후의 패션트랜드와 작금의 패션트랜드에 지배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포스트모던적 시각에서의 패션 특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패션잡지, 패션관련 서

적,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전문서적 등에서 90년대 이후 제작된 국외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200여점의 작품을 표집하였다. 표집된 작품들을 통해 분석해낸 다양한 특성들을 해석형 방식으로 유추하였으며, 이 특성들을 공통된 상위 범주로 유형화시켜 나가며 결과를 도출하였다.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있어 의상과 의상을 착용한 인체는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주체가 되어 표현되어짐으로 표현적 특성연구의 주된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인체 표현 특성이나 전체적인 표현특성, 표현기법이 따로 분리되어 설명할 수 없는 유기적이고도 통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본고는 이를 서로 구분 짓지 않고 함께 논의하였음을 밝혀둔다.

Ⅱ. 90년대 이후 패션의 트랜드와 포스트모던적 특성

90년대를 흔히 리사이클링의 시대로 이야기하는데 20세기를 회고하는 지속적인 복고풍이 주류를 이루었다. 90년대 스타일은 자연주의, 민속풍, 미니멀리즘, 시스루룩등이 유행하고 스트리트패션의 영향력이 컸다.[3]

정삼호[4]는 90년대 전반 (90년-95년)의 패션은 자연주의 성향과 복고무드로 에콜로지(ecology), 에스닉(ethnic), 그런지(grunge), 네오히피(neo-hippie), 히스토리시즘(historicism), 스트리트(street), 복고풍(retro)패션 등이 유행하였다고 했다. 이은영[5]은 90년대 후반(95년 이후)의 예술시각의 이미지로 대표적인 추의 이미지와 문화체계의 통합이미지를 살펴보고, 패션의 트랜드 이미지를 프래드 데이비스(Fred Davis)의 양면가치적(ambivalence), 불안정성(instable)이미지로 보았다. 이에 따라 패션브랜드 광고 이미지를 통해 젊음 대 성숙(ageless image), 남성 대 여성과 양성성 대 단성성(genderless image), 총괄 대 독점(street mode image)으로 95년 이후의 패션트랜드 이미지를 유추하였다. 즉 95년 이후 패션의 이미지는 양면가치를 보여주며, 때로는 추한 이미지로 충격과 역설을 통해 또 다른 고전(여성성)을 향해 가고 있다고 보았다. 남재경, 금기숙[6]은 종래의 상식적인 디자인 개념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스타일이 역사적 시간과 공간을 오가며, 교류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특성을 강하게 나타냈으며, 이러한 경향은 매우 깊고 광범위하게 90년대 트랜드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최근의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과 이에 반하는 자연으로의 회귀욕구와 인간의 본질을 추구하는 인식의 전환 또한 패션 트랜드에 영향을 주었다고 했다. 이들을 포용하는 패션의 주제는 자연주의, 세계주의, 미래주의, 복고주의 등으로 분석하고, 이와같은 패션의 테마들은 각각 독립적이기보다는 서로 상호보완하고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90년대 패션으로 형상화되었으며, 이러한 90년대 패션 경향의 분석 결과는 동시대 사회상을 반영하는 동시에 패션의 특징인 주기성과 반복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은영[7]은 확장문화개념에서의 90년대 유행패션의 경향을 스트리티즘(streetism), 사이버 펑키즘(cyber punkism), 오뜨꾸뛰르 로맨티시즘(haute couture romanticism)으로 분석하였다.

90년대의 패션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하에서 변화하는 시대정신과 대중문화의 혼재적 양상으로 패션을 더욱더 다각화시켜 나가고 있다. 현대패션의 특징은 다양화, 개성화, 탈전통화, 규범의 해체 등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양성성, 해체성의 경향이 크다.[8] 현대의 포스트모던 패션은 실용적인 것보다는 보여지기 위한 것으로, 객관적인 성향보다는 주관적이거나 상대적인 성향의 것으로, 파격과 언어도단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위적 패션은 '낯설게 하기'의 미학을 바탕으로 추의 형식적 원리인 무형식성, 부정확성, 기형의 원리를 적용하여 파격적이고 애매모호한 불확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미샤 모르가도(Micia Morgado)는 포스트모던 패션의 특징을 이미 모든 것이 디자인되어 새로운 것이 없으며 스타일이 재순환되는 복고풍(진보의 죽음), 스타일과 소재의 무질서한 조합(이질적 결합)과 부조화 요소, 절충주의, 엘리트 대중 스트리트간의 차이붕괴(예술의 죽음), 패션은 거리에서 창출되며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불분명, 다양한 스타일의 공존(이질성), 민족과 하위문화스타

일의 차별화와 다양성의 주목, 보이지 않던것의 가시화(탈중심화), 장신구의 강조(브리콜라주, 패로디), 이미지와 외모자체에 대한 관심과 뭔가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로서의 역할, 왜곡되고 혼란한 영역과 의도된 손상, 전통에의 도전 등으로 보았다.[9]

Ⅲ. 90년대 이후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적 특성

현대사회에 있어 일러스트레이션의 역할은 순수한 기능적 수단을 넘어선 하나의 예술로서, 필요조건인 니드와 순수미술의 미를 종합하는 창작으로 받아들어진다.[10]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현대'라는 시각적 상황 속에서 사회문화적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로 나타나고 패션의 의미를 내포하고 전달하기 위한 이미지, 혹은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패션의 특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하는 명확한 의도가 개입되어져 그 이미지를 형성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패션정보에 대한 이해를 유도하는 메시지전달의 수단이다.[11] 그러므로 위의 Ⅱ. 90년대 이후 패션의 경향과 포스트모던적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패션에 포스트모던의 강풍이 불어닥친 90년대 이후는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역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이 패션의 또 다른 표현이기에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더글라스 데이비스(Douglas Davis)는 모더니즘이 고급예술(전위예술: 아방가르드)들의 새로움을 추구하는 도약의 전통을 확립한데 반해, 포스트모더니즘은 그에 대한 역작용, 반동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이같은 시각은 기존에 차용되거나 사용된 기호나 언어에는 완전한 새로움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작품 역시 작가 자신보다는 그것을 수용하는 대중의 개별적 기호파악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개별적 다원주의의 수용은 궁극적으로 다양한 형태들의 가치와 개념, 사고와 인식의 해체라는 극복의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일러스트레이션 역시 이러한 사회적 영향권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12]

포스트모던 시대는 상징과 스펙터클(spectacularization)의 시대라 불리운다. 보드리야르는 스펙터클을 초현실로 여겼고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상태라고 하였다. 소비자는 실제(reality)보다 더 실제같은 초현실적 경험을 원하며 이는 상징과 스펙터클한 양상을 낳게된다.[13]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바로 이러한 패션의 상징과 스펙터클을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생생히 전달 할 수 있는 방식이기에 다양한 표현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이 속성상 내용을 전달하는 기능적 측면을 수반하고 있다 할지라도, 전달자는 창의적이고도 개인적인 주체를 표현하고, 아울러 그것을 수용하는 대중의 개별적 기호에 의해 파악되어지기에, 이와같은 개별화된 다양성에 대한 대응과 충족은 90년대 이후 유사이래 동시대 최대, 최다의 표현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있어 의상과 의상을 착용한 인체는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주체가 되어 표현되어짐으로 인체 표현 특성이나 전체적 표현특성, 표현기법이 따로 분리되어 설명할 수 없는 유기적이고도 통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본고는 이를 서로 구분 짓지 않고 함께 논의하였다. 그러한 관점을 기본으로 하여, 표집된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작품들을 통해 분석해낸 다양한 특성들을 해석형 방식으로 유추하여 보고 이 특성들을 공통된 상위 범주로 유형화시켜 나가며 결과를 도출한 바, 본고는 90년대 이후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특징을 1.개별적 다차원의 여성미 추구, 2. 제작기법과 표현상의 의도적 일탈, 3.권위거부적 표현형식의 추구로 요약할 수 있었으며, 구체적인 분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별적 다차원의 여성미 추구

1) 복고적 여성미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고자 했던 사회적 배경은 빅룩의 유행과 함께 80년대 부터 90년대 초까지 강한 남성적 이미지가 부각되는 캐릭터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주류를 이루었다. 즉 작은 얼굴에 각지며 남성적인 이목구비에 강렬한 표정과 메이크업, 엄청나게 넓은 어

깨, 굵은 목, 근육이 강조된 몸매, 10등신에서 심지어 15등신을 넘는 그로테스크한 기형적 캐릭터로 나타났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가로는 토니 빌라몬테즈(Tony Viramontez)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부터 롱 앤 슬림 실루엣이 10여년 가까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여성스런 이미지의 부각으로 강한 남성적 이미지는 지금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퇴조되고 대체로 가늘고 긴 몸매 에, 좁은 어깨, 여성스럽고 다소 연약한 이미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포스트모던의 복고적 요소와 자연주의적 요소가 반영된 것으로 고전 시대의 자연스러운 라인을 통하여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불러일으키고, 인위적 과장이나 생략이 없는 자연스런 복고적 인체미를 추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연의 편안함과 생명력의 근원지인 자연의 순수성을 강조하여 왜곡되지 않은 자연상태가 그대로 부활되는 곳을 지향하는 사고방식으로 인해 자연적 인체 표현과 연결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과거에 대한 향수 뿐 만 아니라 더 이상 창조될 수 없는 작품의 한계에, 과거에 만들어진 그리고 시도되어진 것들을 조합하여 오늘에 전혀 새롭지 않은 새로움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해체적 작업으로 볼 수 있다.

20세기 말의 새로운 역사주의적 경향의 패션은 과거의 인용, 재사용, 은유, 혼합 등의 방법을 통해 단순한'재현'이 아니라 현재의 문화적 배경에 맞게 절충시킨 것으로, 이를 포스트모던적 범주로 보고 있다.[14]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나는 여성미 역시 전형적인 아름다움의 여성미를 기반으로 현대적인 아름다움으로 새롭게 리뉴얼된 복고유형의 이미지로 표현된다. 즉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미인 스타일로 가늘고 연약하며 예쁘장한 계란형 얼굴의 서구적 마스크를 가진 8등신의 미인형인데, 다만 현대 도시적 감성의 다소 강한 개성의 이목구비로 표현된다. 표현기법은 생략이나 왜곡, 과장 등의 일반적인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전통적 기법에 충실하여 사실적(realism)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림1[15]).

2) 페티시적, 엑스터시적 여성 이미지

패션이 섹슈얼리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왔음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20세기 말 상업화되고 도구화된 성개념의 확산으로 여성의 관능성은 성적 상징부위인 가슴이나 엉덩이, 허리 등이 좀 더 자극적이고 과격하며 외설스럽게 확대되어 창부의 이미지로, 사도마조키즘(sadomasochism)적인 페티시(fetish)적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2[16]).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이러한 경향을 적극 수용하여 연상심리를 통한 성적매력의 투시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①여성의 육감적인 인체 개방과 관능적인 포즈(무릎을 꿇고있는 복종적 포즈, 반쯤누운 포즈, 고양이처럼 엎드려 뒤를 돌아보는 포즈 등) 및 외설스런 표정 ②남성적 기표(오토바이, 시가, 중절모, 남성적인 다이나믹한 자세와 표정 등)를 차용하여 화면에 끌여드려 역설적인 관능성의 배가 ③페티시를 연상시키는 소품(가죽끈, 페티시적 구두,검정색 입술, 동물의 발톱처럼 긴 인조손톱 등)의 차용 ④블랙과 레드의 페티시적 칼라 사용 ⑤ 호피나 표범, 제브라 등의 문양을 사용해 동물적 본능을 자극 유인하는 방법 ⑥얼굴 모습과 메이크 엎에서 그로테스크적 테크닉을 이용한 기괴하고도 충격적인 섹슈얼리티 표현 등의 표현방법들이 동원된다.

그 다음으로 성적 이미지를 드러내는 표현으로는 엑스터시(ecstasy)적인 이미지가 있다. 이는 마치 환각제나 마약을 복용한 것처럼 보여 환락적이며 퇴폐적인 성본능를 자극하는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중심없는 흩어진 자세, 무방비한 자태와 표정, 립스틱이나 마스카라가 번져 엉망이 된 메이크엎, 눈동자의 초점이 흐려지며 정신이 혼미하거나 황홀경에 빠진 상태로 묘사되어진다. 사실적 표현보다는 뒤에 기술될 단순화, 과장, 생략, 왜곡, 부분적 변형, 인체의 해체와 재구성 등의 표현방법으로 나타난다.

3) 혼성적(混成的) 탈정형미

포스트모던적 패션의 특성에 있어서의 '절충'은 다양한 양식을 융합시키는 표현기법에 속한다. 여기서 양식이라함은 남성과 여성, 젊음과 성숙, 부와 빈곤, 서양과 동양, 주류문화와 하위문화 등 복식을 착용하는 인간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회, 문화적 맥락을 포괄하는 의미이다.[17]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있어서의

절충주의적 표현은 남성과 여성이 융합되어 성의 정체성이 없는(genderless) 혼성적스타일, 젊음과 성숙이 혼합되어 연령이 파괴되는(ageless) 혼세대적 스타일, 동양과 서양이 혼합된 혼민족적 스타일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90년대 이후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도 역시 중요한 특성을 이룬다.

① 혼성적(混姓的) 스타일

위에 언급한 토니 빌라몬테즈(Tony Viramontez)는 패션에 포스트모던의 기운이 일기 시작한 80년대 초반부터 이미 남성과 여성이 혼재된 중성적 이미지를 창조했다. 그는 표현대상의 성별은 의미가 없으며, 다만 80년대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고 하여 성별을 초월한 이미지 메이킹에 주력하였다. 그는 80년대 트랜드에 부합되는 공격적이고 강렬한 이미지를 만드는데 그의 에너지와 모든 감정을 쏟아냈다.

90년대 역시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가 동시에 혼재되어 표현되는데, 80년대처럼 공격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강렬함의 중성적 이미지가 아닌 90년대적인 특성을 갖춘 보다 부드럽고 편안한 스타일의 혼성 이미지이다. 예를들면 사각형의 남자얼굴에 여성스런 메이크 업, 관능적인 인체와 포즈 등으로 양성성이 혼재한 묘한 스타일로 구사되는 경우이다.

② 혼세대적(混世代的) 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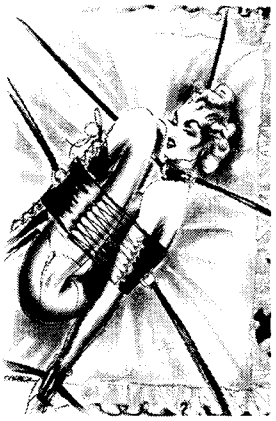
패션에서 나타나는 에이지리스 현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10대 후반에서 20대까지 미의 황금기를 표현대상으로 하지 않고 여성과 소녀가 혼합하여, 성숙한 여성미와 미성숙한 소녀미가 동시에 풍겨 오히려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의 일면이 드러나는 독특한 미가 발산된다. <그림 3>은 어린이와 성인이 혼합된 이미지로 내면에 성인에게 무의식적으로 억압되어진 유아적 성적 환상을 충족시키는 인간의 위선적 욕구 충족이 내재되어있다. 상업적으로 물화되고 도구화된 성상징이 드러난 작품이다.

뿐만 아니라 성인과 노인의 이미지가 결합되어 패션에 풍자나 해학의 메세지를 내포하거나, 그동안 젊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미와 패션에 대해 연령 영역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의도적 파괴, 탈중심적 사고의 작품도 많이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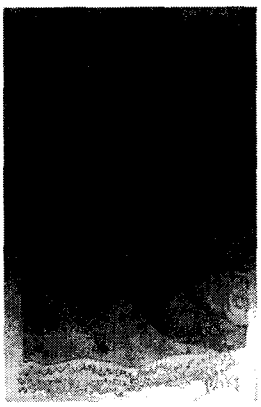
③ 혼민족적(混民族的) 스타일

과거 서양중심 사고의 미인 이미지가 이제는 탈중심화, 다원화되고 있다. 소수 민족과 하위문화의 양식으로부터 차용한 어떤 요소를 원래의 의미로부터 이탈시켜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미를 창조하고 서구중심의 획일적 미의식을 붕괴시켰다. 작금의 세계적인 패션모델을 보더라도 동양인과 서양인의 혼혈, 둥글넙적하거나 각진 얼굴의 동양인, 흑인과 백인의 혼혈, 완전 토속 원주민 마스크를 가진 흑인 등이 대거 등장하고 있음을 볼 때 미의 규범이 서양 중심에서 부터 다양한 인종으로 점차 확산 내지 전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1> The Bombshell Munual of style, p. 151.



<그림 2> Fashion illustration today, p. 123.



<그림 3> Art collection. Produced by Heart.

<그림 4> Fashion illustration Now, p. 93.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는 동양인이나 흑인의 특징인 사각형 혹은 둥글넙적한 큰 얼굴에 외꺼풀의 길쭉한 눈, 넙적한 코, 얇고 작은 입술, 큰 광대뼈, 검은 피부와 툭 튀어나온 두꺼운 입술 등이 부분적으로 채택된다. 여기에다 인체는 슬림하고 늘씬한 타입의 서구체형을 접목시켜 혼민족의 이미지를 표현한 스타일이 많이 성행되고 있다(그림 4[18]).

4) 인체의 해체와 재구성의 미

해체는 포스트모던적 사고의 중심이 되는 개념으로, 90년대 패션에서도 핵심이 되는 중요한 사고로 이미 많은 선행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인체해체 현상은 포스트모더니즘은 물론 신표현주의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인간해방의 개성예찬론, 어느 것에도 얽매이기 싫어하는 작가의 자유정신과 주체성, 작품으로서의 유일성에 대한 관심, 인간모습의 극히 주관적인 표현으로의 상징화로 특징지울 수 있는 세기말의 신표현주의적 표현은 회화 뿐 아니라 패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도 나타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특성의 주된 양식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효진[19]은 신표현주의적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의 공통된 조형적, 양식적 특성을 주관적이고 자율적인 표현추구, 풍자적이고 유머러스하게 표현, 인체의 비례의 왜곡과 해체, 이목구비의 뒤틀림, 자연형태의 부조화된 비율법 등을 들었다.

인체 고유의 형태를 기정사실화하기보다는 재창조의 대상으로 보고 주관적이고, 자율적인 표현을 추구한다. 작가의 의도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인체의 비례와 형태를 왜곡하고 변형시킨다.

① 부분적 변형에 의한 기형화

과장, 확대, 축소, 생략, 제거, 왜곡, 이질적 결합 등의 방법이 동원되어 인체를 변형함으로 인해 얼굴을 비롯한 인체를 기형화시켜 전혀 새로운 인체로 새롭게 재구성한다.

과장은 인체의 비율을 10등신 이상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인체로 변형하는 경우이다(그림 5). 축소는 인체 길이의 비율을 반대로 6등신 이하로 축소하거나, 인체의 길이와 폭 중 길이는 증가시키고 폭은 축소시키거나, 얼굴, 허리, 팔과 다리, 어깨 등 작은 것이 선호되는 부위를 기형적으로 축소시켜 표현한다. 생략, 제거 등도 인체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제거함으로 인해 인체가 인체를 암시하는 구조를 갖거나, 필요한 부위를 강조하거나, 새로운 조형으로 형상화된다. 왜곡은 인체의 각종 변형방법과 위치 전환에 의한 변형, 이목구비의 자유분방한 뒤틀림 등으로 자연형태에서 이탈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 외 이질적 결합은 인체에 인체와 무관한 제3의 물상을 하나로 연결하여 신개념의 그로테스크(grotesque)한 기형적 인체로 표현하여 독특한 스펙터클(spectacle)이나 환타지(fantasy)를 연출한다.

② 동식물화, 물신화(物神化), 기계화로의 변용(變容)

인체의 부분적 변용에 의한 기형화와 일부 중복되는 개념이기는 하나 위의 개념은 인체 자체를 변형해 새로운 이미지의 인체를 추구한 것인데 반해 이는 인체를 구체적인 어떤 대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계획에 의해, 인체가 무엇인가로 화(化)하여 인체와 어떤 대상의 혼종(混種)으로 표현된 경우이다. 동물화는 인체를 고양이나 표범등 특정동물화 시켜 에로티시즘적 메시지를 전하며(그림 6), 식물화는 주로 꽃이나 나무를 메타포적(metaphor)은유로 표현된다. 물신화는 상업성을 강조하여 무생명의 인형이나 만화 주인공 같은 케릭터로 나타나거나 섹슈얼리티적으로 도구화시키는 표현에 이용되며, 기계화는 퓨처리즘적 컨셉 표현에 주로 사용된다.

③ 추의 미화

계란형 얼굴, 서구적인 뚜렷한 이목구비, 8등신의 호리호리한 신체에 글래머러스한 여성성이 강조된 몸매가 미의 전형이었다. 그러나 추의 미학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그동안 추하게 인식되어 온 인물의 스타일들이 새로운 미로 표현되고 있다(그림 7).

얼굴이 기형적으로 큰 5등신 정도의 단신체형, 매우 뚱뚱하거나 반대로 기형적으로 마른 막대기 같은 체형, 토종 흑인이나 토종 아시안의 이목구비를 가진 못 생긴 얼굴, 남자 같이 생긴 체형과 얼굴, 가장 미

적인 연령대인 젊음을 상실한 노인형 등 추한 것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다원화, 개별화, 새로움의 미학, 낯설게 하기의 포스트모던적인 열린 미학으로 '추(醜)'를 새로운 미의 범주로 끌어들이고 있다.

2. 제작기법과 표현상의 의도적 일탈

1) 전통적 원근법의 일탈

과거의 원근법을 탈피하여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르네상스 시대의 수학적이고 합리적인 원근법이 대다수 무시되고 있다. 구도 표현의 특징은 아방가르드 예술구도의 활용으로 평면적 구도 즉 클로즈 업, 시상의 합체, 반접사적 구도, 전통적 구도의 현대적 변용인 다중 시점의 복합적 구도, 일상적 장면을 포착한 스냅적 구도 등으로 현대적 구도의 다양성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20] 특히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있어 평면적 구도는 90년대 이후 급속히 퍼져 보편화 되다시피한 주목할 현상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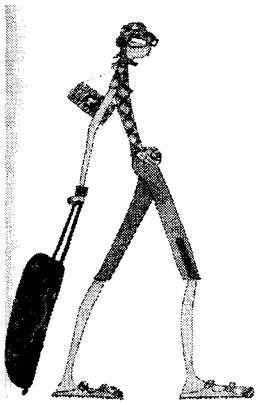
2) 구도 개념의 일탈

화면을 구성하는 중심요소와 관습적 구성을 탈피하여 중심의 부재와 공간의 개방성이 중시되는 것으로, 자유로운 사고에 의해 새로운 구성을 갖는다. 따라서 조형원리의 기본인 균형, 비례, 리듬, 조화 등을 의도적으로 파괴하여 일반적인 가치의 반대 현상으로 표현된다. 질서와 원칙을 이탈하여 무질서와 비규범을 추구한다.

주제의 해체를 위해 표현대상을 인위적으로 분절, 파괴하여 재조합하거나, 분해하여 전위시켜 대상을 왜곡하여 탈구조의 형태를 갖는다. 혹은 패션일러스트레이션 화면에 인물과 배경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일원화하여 그 구분을 의도적으로 파괴함으로서 공간의 해체를 도모하는 이른바 의외성, 낯설음, 혼동의 충격적 시각 유인의 방법이 나타나고 있다(그림 8[21]).

3) 재료와 재료상의 표현기법의 탈피

90년대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핸드 드로잉 뿐 아니라 꼴라쥬, 브리콜라쥬, 에어브러쉬 기법, 사진



<그림 5> Fashion illustration Now, p. 69.

<그림 6> Art collection. Produced by He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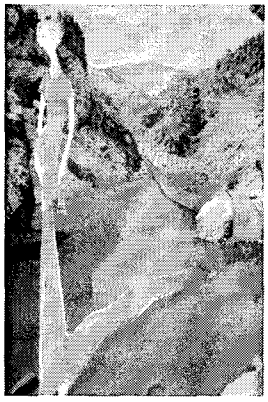
<그림 7> Fashion illustration Now, p. 77.

<그림 8> Fashion image Demode No3, p. 54.

과 일러스트레이션의 합성(그림 9), 컴퓨터 그래픽스, 스탠실, 팝 아트적인 그라피토(낙서)기법, 판화기법 등 다양하게 많은 표현기법을 통해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법들을 서로 융합시키기도 한다. 작가에 따라 어느 정도의 독특한 표현기법들이 구사되지만, 대체로 재료에 따른 전통적인 사용법이 존재하여왔다. 그러나 이제는 재료가 가진 기존의 표현특성을 무시하고, 그동안의 재료에 따른 사용방법을 회피하여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 핸드 드로잉의 경우를 예를들면, 투명수채를 가지고 공간을 단순히 평면적으로 메꾸어 마치 컴퓨터로 작업 한 것 같은 2D 스타일로 완성한다든지(그림 10[22]), 투명 수채 채색 위에 마르기전에 스크래치를 하는 등(스크래치

는 크레용이나 아크릴 등에서 구사되어왔다)이 그것이다. 컴퓨터 작업의 경우, 3D를 이용하기보다는 2D의 완전평면 상태로 표현대상을 단조롭게 메꾸어 입체감이나 원근감을 배제한 단순성이 지향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탕이 되는 종이의 개념도 다양해져 주변에서 구할수 있는 여러가지 재료들을 바탕 재료로 활용하며, 두 세 가지를 서로 조합하여 전혀 새로운 바탕으로 구성하여 바탕 자체가 작품의 중요한 요소로 오브제화 시키기도한다. <그림 11>은 신문, 백지, 모눈종이 등을 찢어붙인 후 그 위에 젯소를 부분적으로 발라 바탕을 만들어 바탕자체가 텍스추어감 있는 중요한 구성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그림 9> Millennium mode, p. 19.

<그림 10> The London Fashion Book, p.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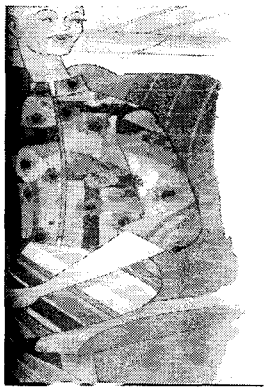
3. 권위 거부적 표현 형식의 추구

90년대 이후 전통적이고 아카데미즘적인 표현을 벗어난 탈권위적 표현형식이 다양하게 추구되고 있다. 그 표현형식들의 특성을 보면 탈조형적, 단순화, 평면화, 미완성의 완성, 우연적, 유희적, 인물실체의 부재, 의도적 유아성, 스토리의 전개, 테크노메카니즘과 사이버 케릭터 스타일, 에니메이션 스타일등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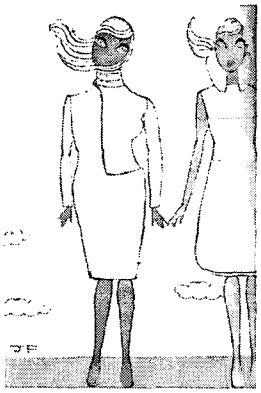
1) 탈조형적

탈조형성과 추의 미는 특히 90년대 포스트모던 패션의 중요한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팝아트 이래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의 경계 와해가 이미 시도되어 왔고, 대중패션 혹은 하위문화의 스트리트 패션은 그 위세가 막강하여 지금은 널리 확산되어졌다.

전위로서의 순수예술과 후위로서의 대중미술이 양자사이의 간극을 제거하고 그 실체를 구별하기 어려운 작금의 현실속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은 '가치있는 '의미를 '창의적 개인'이자 '주체'로서 표현하는 과정에 대한 자각의 수반이 필수적이다.[23] 그러나 패션의 또 다른 기호로서의 역할을 해온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포스트모던 현상이 여타 예술분야를 휩쓸고 있는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회화와 표현방식을 같이하는 구조로 인하여 아직은 회화적인 예술성이 침투하여 아카데믹한 전통적 표현을 즐겨 사용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급속도로 확산되어 일반화



<그림 11> Fashion illustration Now, p. 113.



<그림 12> Fashion illustration Now, p. 84.

된 포스트모던 패션의 여파와 함께 이른바 :"예술의 죽음"의 확산으로 예술적 깊이감이나 형이상학적 감동의 쾌락을 상실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 아카데미즘을 거부하는 탈 아카데미즘적, 탈 텍스트적 현상으로, 비례, 균형, 변화등의 조형요소를 만족시키는 고급스런 취향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 이탈하여 대중적이고 일회적이며, 변덕스러운 순간적 취향을 위한 것으로 바뀌게된다(그림 12).

2) 단순화

① 구성상의 단순화

포스트 모더니즘적 경향이 지배적인 현대후반에 모더니즘적 트랜드인 미니멀리즘의 재등장의 의미는

궁극적인 것, 내면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인간 내면으로 향한 환원적 의지로 되돌아 오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24]

미니멀아트는 인간 및 자연의 어떤 형태를 추상화하는 예술이 아니라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이든 원소처럼 궁극적으로 남게 되는 본질적인 요소, 또는 본질 개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이것을 미술로써 나타내려는 시도이다.[25] 미니멀리즘의 환원적 특성은 결국 오브제 개념을 만들어내고 조형예술의 가장 성분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그 자율성과 의미를 회복하게 함으로써 미술제작과 체험, 그리고 작품의 가능성 영역을 확장하기에 이른다. 나아가 이는 다원화로 특징 지워지는 포스트 미니멀리즘, 즉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반이 된다.[26]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표현되는 인체와 의상이 비기교적, 비장식적 형태를 추구하며, 모노크롬적인 채색, 절제와 생략을 통해 더 이상 감(減) 할 수 없는 최소표현에 의한 심플함을 지향한다. 그럼으로 인하여 본질적인 것의 무위엄 즉, 인체와 그 위에 착용된 의상이 갖는 본질적인 환원의지에 대한 선호를 표출함으로 소위 '단순성'이 크나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최근 패션알러스트레이션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그림 13).

② 제작방법상의 단순화

미니멀리즘은 미니멀아트의 배경이 되는 개념이며, 저널리즘이나 비평가 그룹에 의해 차세대의 이데올로기로 떠오르는 한 경향으로 최소한의 제작으로 사물의 존재를 직접 드러내 보이려는 환원적 의지를 표명한다.

뿐만 아니라 미니멀리즘은 모더니즘적 사고인 방법적 논리의 합리성의 추구로 제작과정의 최소화를 지향하고 있다. 작가의 노력이 관람자에게 들어나지 않게 하며, 구조적인 노력의 절제와 개인적인 솜씨를 배제시킴으로서 최소한의 제작 과정으로 단순화하였다. 이는 작품의 근원을 물체의 표면에 재위치시킴으로서 작품의 허상성을 배제하고 모든 선입견과 상징, 내부의미에 대하여 괄호를 침으로서 본질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제시하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제작과정의 최소화는 생산과정의 합리성(제작과정의 합리성)의 기능적 형식에 대한 선호로 인하여 치밀한 사전 계획이나 밑그림 없이 단시간에 순간적인 즉흥성에 의해 이루어진 듯한 형태로 나타난다. 프리핸드 드로잉(free-hand drawing), 단번의 터치로 완성된 일필휘지(一筆揮之)의 칼리그래픽(calligraphic), 자유분방한 크로키 스타일 등이 그것이다. 이는 관람자로 하여금 친근감, 편안함, 일회성, 어려움이 배제된 쉬움(용이성)을 유발시켜 부담없이 접근하고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작가 역시 제작시의 단순한 제작과정으로 인하여 감정의 이입이 용이하며, 순간적인 영감을 놓치지 않고 화면에 곧바로 표현할 수 있는 제작시의 만족과 쾌감을 얻을 수 있기도 하다.

3) 평면화

전통적 구도의 일탈에서 논의 한바와 같이 평면적 구도는 90년대 이후 급속히 퍼져 현재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는 이미 보편화되다 시피한 중요한 현상이다. 특히 2000년으로 들어오면서 이와 같은 평면화 작품이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다수를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현상은 위에서 언급한 최소표현의 미니멀리즘, 즉 제작기법상의 단순화와 구성상의 단순화에 힘입은바 크며, 탈 아카데미즘적 특성으로 볼수 있다(그림 14). 뒤에 기술할 에니메이션 스타일, 의도적 유아성, 컴퓨터에 의한 제작 확대 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기초적인 대상과 원근법이 철저히 무시되고 입체감이 완전히 배제된 컴퓨터작업을 통한 평면화 기법에서는 유일무일(有一無一)성 추구보다는 보편적이며 대량 생산적이고, 누구나 쉽게 접하고 작업할 수 있는 서민적 문화를 느낄 수 있다.

4) 미완성의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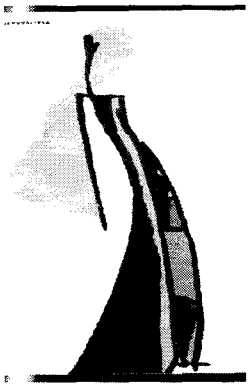
포스트모던적 특성의 의상에서 해체적 탈구조의 형태를 추구하여 의상의 제작과정을 그대로 노출시켜 만들다가 만 것 같은 작품들이 제시되었다. 그리하여 이 기법은 이미 대중의상의 구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있어서는 형태의 일부분을 제거하여 부분만 드러나게 하거나, 혹은 일부만 제시함으로서 미완성된 듯한 상태에서

작업을 마친다(그림 15). 즉 이미지의 일부만이 제시됨으로 인해 작가의 주체적 결정을 배제하고, 작품이 미완결의 상태로 제시되며, 수용자의 자의적 해석을 유도하여 감상자에 의해 이미지를 완성시킨다. 따라서 수용자 개인에 의해 각각 개별화된 다양한 이미지가 완성되며 하나의 기표(記表)가 다중 기의(多重記表)로 전파된다. 또한 미완성의 묘한 여운이 화면에 신비감을 일으켜 이미지 상승효과를 주기도하며, 일부 제시된 부분에 시선을 응집시켜 보다 강력한 메시지 전달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5) 우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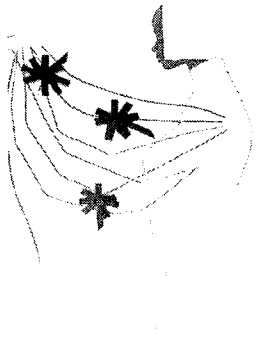
일러스트레이터 미셸 비무우스(Michale Weymouth)는 직관적인 에너지와 비일상적인 효과를 강조하여, 감성과 임의성에 의한 포스트모던적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이는 우연에 바탕을 둔 것처럼 보이는데 이를'통제된 우연(controlled accident)이라 부른다.[27]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우연적 효과는 작가의 의지에 의해 구속되는 재료의 효과를 최대한 배제하고, 재료가 갖는 고유의 효과를 살려 재료의 특성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행해진다. 이를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재료적 효과를 이미 계산한 작가의 선의지(先意志)를 숨긴 우연을 가장한 숙련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그림 16)(그림 20).

주로 투명수채의 번짐, 스크래치, 스템핑, 물감 흘리기와 뿌리기, 입으로 불기, 얼룩지게 하기 등의 전통적 방법이 행해진다. 계획적 우연과 개방된 공간구성으로 인해 무의지적, 비법칙, 비규범, 자유, 내추럴함 등을 느끼게 한다.



<그림 13> Fashion illustration Now, p. 13.

<그림 14> Fashion illustration Now, p. 97.



<그림 15> Fashion illustration Now, p. 47.

<그림 16> Fashion illustration Now, p. 32.

6) 유희적

세기말의 패션은 특히 유희욕구에 있어서 중요한 매게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유희적으로 자신의 외모를 변형시킴으로서 일상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자신의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감정에 따른 새로운 룩의 시도는 자유로롭고 재미를 느끼게 한다.

유영선[28]은 유우머의 발생이론에 대입하여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유우머의 내적의미를 우월성, 부조화, 해방감으로 정리하고, 그 표현기법을 인체변형, 요소의 대비, 이중적 이미지, 장난, 패러디, 케리커쳐 등으로 요약했다.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변덕스런 기표와 항상성(恒常性)이 배제된 단편에 의거한 가벼운 유머로 전하는 경우가 9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그림 17).

7) 인물 실체의 부재(不在)

이는 기존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 표현의 중심주체가 된 인물(의상을 착용한)에 의해 패션메세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인 인물의 실체를 약화시키거나 제거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그 의미를 축소시키는 대신 의상이나 혹은 특정 내용을 부각시켜 전달하고자하는 패션의 내용과 메시지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의상을 입혀지는 수동적 대상이

아닌 표현매체로 간주한 순수 구성주의적 자세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작품은 표현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주로 차용, 대체, 전체중의 일부 제시, 은유와 환유를 이용한 암시, 패러디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구조적 불일치, 반자연적, 착장된 인체와 의상형태와의 부조화에서 오는 시각적 충격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그림 18>은 의상을 착장한 인체가 배경과의 구분이 모호한 개방공간 구조를 취함으로 인체는 희미한 실루엣으로 부분적으로 암시된다. 그러므로 의상의 프린트인 꽃잎들이 시각적 우위를 점유하여 프린트라는 의상의 요소(패션의 특정 내용)가 집중적으로 전달되는 효과를 주고 아울러 꽃잎의 미적 환상이 강화되고 있다. <그림 19>는 인물을 토르소형으로 표현해 무생물, 무기질화하였다. 순수구성주의의 입장에서 의상의 구조에 주체적 자율성을 부가하고자 주체인 인물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축약시킴으로 바디컨셔스(body-concious)라인의 시스루(seethrough)와 비딩(beeding)이 강조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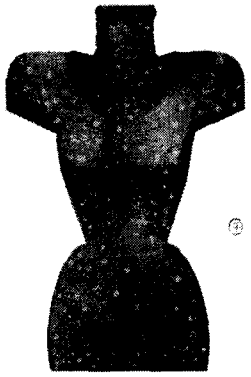
8) 의도적 유아성

완벽하지 않은 미숙함이 어찌보면 어린이가 그린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전혀 기본적인 테크닉이 없는 사람이 제멋대로 마구 그려버린 것 같기도 하다. 여기서 무의식에 내재된 유아적 환상을 충족시키며 규범으로 부터의 자유, 기교없는 순수함과 신선함이 새로운 자극으로 다가온다.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 인물의 유아적 케릭터 적용이나 유아적 터치는 영 에이지 존(young age zone)의 패션이나 이에 관련된 컨셉의 표현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뜨꾸뛰르 패션을 포함한 광범위하게 다양한 컨셉의 패션에 실행되며 에이지 타겟(age target)과도 무관하게 유행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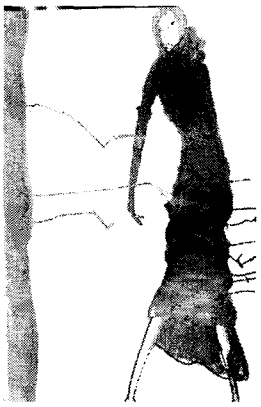
이는 이러한 테크닉에서 우리가 유아적 미숙함이 제공하는 사고의 이완과 완벽함으로부터의 이탈에서 오는 탈텍스트적 자유를 접하게 되기 때문이다(그림 17)(그림 20).

<그림 17> Fashion illustration today, p. 51.

<그림 18> Fashion illustration Now, p. 31.



<그림 19> Fashion illustration Now, p. 81.



<그림 20> Fashion illustration Now, p. 36.

9) 스토리 전개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있어 메시지 전달은 등장하는 인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대부분임으로 별도의 배경이 없이 의상을 착용한 인물만이 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외 주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거나 미적인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배경을 추상이나 반추상의 비구상적 형태, 혹은 실상의 구성 형태로 제작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화면안에서 배경은 인물과의 비중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더 이상 주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패션과 그 패션을 누리는 다양한 삶의 모습과 장면

을 하나의 이야기로 표현하며, 물리적 의미의 패션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서의 패션을 전하고 있다(그림 17). 여기서 패션과 함께 설정된 상황이나 스토리는 흥미롭고, 재미있고, 때로는 풍자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인물과 배경 중 인물이 중심이 되고, 주제와 부제 중 주제가 중심이 되는 사고와, 양자의 구분적인 이원론적 사고를 벗어난 패션일러스트레이션 구성의 전혀 새로운 발상으로 탈중심적 내지 탈텍스트적인 사고로 볼 수 있다.

10) 테크노 메카니즘과 사이버 케릭터 스타일

컴퓨터와 각종 테크노 메카니즘의 발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등은 핸드메이드적인 케릭터에서 점점 사이버 케릭터에 익숙한 문화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영상 에니메이션 분야나 컴퓨터 게임, 각종 상업적인 케릭터에 있어 테크노적인 사이버 케릭터가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패션분야에서도 퓨처리즘(futurism) 패션, 뉴 미레니엄 (new millenium)패션 등에 여러 가지 테크노적인 소재와 미래지향적인 코즈모(cosmo) 스타일의 디자인이 발표되었다.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 핸드메이드와 사이버가 결합된 듯한 인물표현이 자주 등장하며, 사실적인 복고적 미인형에 있어서도 컴퓨터로 제작한 사이버적인 느낌의 인물이 대부분 평면화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11) 에미메이션 스타일

60년대 팝아트 작가인 로이 리히텐슈타인(L. Lichtenstein)은 만화에서 발췌한 것들을 거대하게 확대시킨 작품을 발표한 바 있다. 값싼 재생과정의 망점들에 의해 표현되는 인체는 그래픽적이면서 현대 물질문명 속의 소모품과 비슷한 처지로 전락해가는 인간을 재해석하였다.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이 인쇄와 대량복제를 전제로 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측면으로 인해 에니메이션 스타일은 쉽게 수용되어졌으며, 이미 60년대 안토니오 로페즈(Antonio Lopez)로부터 팝아트적 만화 기법이 시도되었다. 대부분 사실적인 인체 위에 세부 묘사를 한 사실적인 의상이 입혀지고 평면적 기법으로 완성된다. 90년대 이후의 만화기법은 맥킨토시 포토샵을 이용하여 유사한 형태로 많이 제작되고 있으며, 그 밖에 특이할 만한 점은 만화에서 보여지는 구성을 화면에 그대로 패로디하여 칸을 나누어 몇몇 컷을 실어 제작하고, 때로는 만화의 대사처럼 글자를 적어 패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여, 실제로 만화책을 보는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가볍고 일상적인 이미지가 친숙하고도 쉽고 재미있게 전달된다(그림 17).

이상의 연구인 Ⅲ. 90년대 이후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적 특성을 <표 1>을 통하여 정리하였다.

<표 1> 90년대 이후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적 특성

	표현특성의 하부개념	하부개념의 내용
개별적 다차원의 여성미 추구	복고적 여성미	
	페티시적, 엑스터시적 여성미	
	혼성(混成)적 탈정형미	혼성(混姓)적 스타일. 혼세대적 스타일. 혼민족적 스타일.
	인체 해체와 재구성의 미	부분적 변형에 의한 기형화. 동물화, 물신화, 기계화로의 변용. 추의 미화.
제작 기법과 표현상의 의도적 일탈	전통적 원근법의 일탈	
	구도 개념의 일탈	
	기존재료와 재료상의 표현기법의 탈피	
권위 거부적 표현 형식의 추구	탈조형적	
	단순화	구성상의 단순화. 제작방법상의 단순화.
	평면화	
	미완성의 완성	
	우연적	
	유희적	
	인물실체의 부재	
	의도적 유아성	
	스토리 전개	
	테크노메카니즘과 사이버케릭터 스타일	
	에니메이션 스타일	

Ⅳ. 결 론

패션의 또다른 표현 메카니즘인 패션일러스트레

이션은 패션트랜드를 보다 적극으로 수용하여 그 의미를 확장시켜, 이미지를 극대화시킴으로서 트랜드의 리더적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패션의 트랜드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특성은 상호 깊이 연계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필연적으로 갖게 된다.

본 연구는 90년대 이후의 패션트랜드와 함께 패션에 지배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포스트모던적 시각에서 패션 특성에 관해 살펴보고, 그 연계 관점에서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특성을 연구하였는바, 그 결과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범주화 할 수 있었으며, 하부개념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적 다차원의 여성미 추구이다. 이는 1) 복고적 여성미, 2)페티시적·엑스터시적 여성미, 3) 혼성적(混成的) 탈정형미(혼성적(混姓的)스타일, 혼세대적 스타일, 혼민족적 스타일), 4)인체해체와 재구성의 미(부분적 변형에 의한 기형화, 동물화·기계화·물신화(物神化) 로의 변용, 추의 미화)등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제작기법과 표현상의 의도적 일탈이다. 1)전통적 원근법의 일탈, 2)구도 개념의 일탈, 3)기존 재료와 재료상의 표현기법의 탈피를 들 수 있다.

셋째, 권위거부적 표현형식의 추구이다. 이는 가장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범주로 90년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표현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 범주의 하부개념들은 1)탈조형적, 2)단순화(구성상의 단순화와 제작방법상의 단순화), 3)평면화, 4)미완성의 완성, 5)우연적, 6)유희적, 7)인물실체의 부재 8)의도적 유아성 9)스토리 전개, 10)테크노 메카니즘과 사이버 케릭터, 11)에니메이션 스타일 등으로 요약되었다.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이 패션을 나타내는 또 다른 기호라는 사실과, 90년대 이후의 패션 경향이 포스트모던적 특성 범주에 거의 벗어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목도할때, 연구된 결과가 곧 90년대 이후 작금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특성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가 90년대 패션경향과 패션의 포스트모던적 특성과의 연계에서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특성을 분석한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분석된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해 각각 구체적이고도 깊이있는 논의를 할 수 없음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분석된 특징들을 하나 하나의 주제로 하여 심도있는 후속연구가 진행됨으로, 현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방향과 추이를 학문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Social Trend Fashion Trends (1998/1999). *L' Observatoire*, Premiere Vision, 박신희 (1999). 1990년대 해외 컬렉션과 국내 컬렉션의 패션트랜드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4에서 재인용.
2) 상게서. p. 56.
3) 금기숙 외 (2002). 현대패션100년. 서울: 교문사. pp. 298-299.
4) 정삼호 (1996). 1990년대 현대패션의 흐름을 통해 고찰한 패션스타일에 관한 연구: 1990~1995년의 여자복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가정문화논총, 10, p. 75.
5) 이은영 (1998). 현대예술과 패션트랜드 이미지에 관한 연구: -95년 이후 패션 트랜드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6(3), pp. 470-471.
6) 남재경, 금기숙 (2001). 1990년대 패션트랜드 분석연구. 복식, 52(9), 한국복식학회, p. 1645.
7) 이은영 (1997). 확장문화개념에서의 90년대 유행패션의 경향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5(4), p. 554.
8) 손미희 (1999).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문화현상과 패션. 한국복식학회. 복식, 46, p. 50.
9) Morgado, Micia A. (1996). Comming to Terms with Postmodern: Theories and Concepts Contemporary Culture and Their Implication for Apparel Scholar, *C.T.R. Journal, 14*(1), pp. 41-53; 최선형(2001). 패션:포스트모던적 접근. 카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문집, 21(1), p. 66에서 재인용.
10) 김경선(1993). 현대사회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의 역할. 단국대학교 학술저널, 2, p. 339.
11) 성광숙 (2000).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상업적 기능과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50(7), 한국복식학회, p. 167.
12) 김창수 (2000). 대중미술로서의 크리에이티브 일러스트레이션. *Illusology, 6*. 한국일러스트아트학회, p. 34.
13) 최선형. 전게서, pp. 62-63.
14) 박윤정, 유숙희 (2000). 세기말에 나타난 역사주의 의상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1), pp. 89-90.
15) Lauren Stover, *The bombshell manual of style*, N.Y.:

Hyperion, 2001.
16) Nicholas Drake, *Fashion illustration today*, Revised ed., London: Thames and Hudson Ltds., 1994.
17) 이정후, 양숙희 (1999).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 복식, 45, 한국복식학회지, p. 192.
18) Laird Borrelli, *Fashion illustration now*, London: Thames and Hudson Ltds., 2000.
19) 박윤정, 양숙희 (2000). 세기말에 나타난 역사주의 의상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1), p. 90.
20) 유영선, 박민여 (2001). 1980년대 이후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시각적 이미지 표현방법 분석(제1보). 복식, 52(4), 한국복식학회, pp. 791-792.
21) Lisa Lovatt-Smith ed., *Fashion images demode*, Dustere Strasse: Steidl, 1998.
22) Andrew Tucker, *The London fashion book*, N.Y.: Rizzoli International Pub., 1998.
23) 김창수, 전게서, p. 34.
24) 정홍숙, 현선진 (1995). 20세기 후반 복식에 표현된 미니멀리즘의 환원성에 대한 연구 -1990년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가정문화논총, 9, p. 126.
25) 상게서, p. 126.
26) 마이어 피사로, 김윤수, 방대원 역 (1989). 현대미술사론, 서울: 까치글방, pp. 261-269, 변지연, 이순흥 (1996). 미니멀리즘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4(3), p. 431에서 재인용.
27) 김경훈, 이진구 (1991). 포스트모더니즘과 일러스트레이션. 서울산업대학교 논문집, 34, p. 105.
28) 유영선 (1998).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있어서의 유우머 이미지. 한국의류학회지, 22(8), pp. 980-987.